

국가AI컴퓨팅센터 전력공급망 구축 '청신호'

해남 산이변전소 신축허가 승인...최첨단 전력설비 갖춰 재생에너지 연계...미래 첨단산업 견인·기업 유치 탄력

정부가 해남군에 설치하기로 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공사가 신청한 산이변전소 신축 인허가 건에 대해 최종 승인 처리를 완료했다. 산이변 상공리 일원에 건립되는 산이 변전소는 대지면적 3832㎡, 연면적 2900.17㎡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1동 건물이 들어선다. 154kV 규모로, 내

부에는 케이블처리실, 변압기실(M.Tr 실), 감시실, 계전기실(IED실), 정보통신실(ICT실) 등 최첨단 전력공급 설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이번 인허가는 지난 1월 접수 이후 경관심의 등 14건의 내외부 협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됐다. 토지사용 승낙서 보완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최종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작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해, 이에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일정에 맞

춰 전력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산이변전소 건립은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변전소 건립은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변전소를 통해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RE100산단 등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해남군은 미래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 '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산이변전소는 국가적 과제인 AI인프라 구축의 선결 조건이다"며 "이번 허가를 통해 솔라시도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밤에도 빛나는 청산도' 원도군은 청산도 솔로경기 축제 기간 동안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풍경뿐만 아니라 밤에도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산도의 밤은 인공적인 빛이 적은 어둠 속에서 쏟아질 듯한 별빛, 은은한 달빛, 고요한 바다를 보며 낮과는 또 다른 청정 자연 속 힐링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제공=원도군청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내달 2일 개막 준비 군, 전시 연출·행사 운영 등 전 분야 실행력 강화

완도군은 5월 2일 개막하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전시 연출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영 분야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와 현장 대응 체계 강화, 회장 조성 분야는 포토존 및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람객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관리 분야는 인파 밀집 구간 집중 전시 연출 분야는 해조류의 생명력과 미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연출, 체험형 콘텐츠, 스토리 기반 공간 구성을 강화했으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 완성도와 전시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보완 중이다. 관람객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

는 전시 구성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연출을 통해 전시의 차별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운영 분야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와 현장 대응 체계 강화, 회장 조성 분야는 포토존 및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람객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관리 분야는 인파 밀집 구간 집중 관리, 경호 요원 배치, 시설물 전수 점검,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선제적 안전 관리 대책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점검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 높은 박람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7일까지 5개 참여팀 모집

영암군이 청년들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구성원의 최대 40%까지는 타 지역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총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영암=한정국 기자

목포, K-관광 콘텐츠 강화...관광객 2000만시대 '본격화'

TF회의서 핵심 과제·실행 전략 점검...활성화 방안 논의 목포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목포 K-관광 콘텐츠 강화' TF회의를 개최하고, 관광객 2000만 유치를 목표로 핵심 과제와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관광·문화예술·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목포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목포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와

TF회의서 핵심 과제·실행 전략 점검...활성화 방안 논의 전남연구원 연구진, 체육·관광 분야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해상W쇼 고도화와 해상 공연 콘텐츠 강화 등 K-관광 선도 관광권 인칭작 레지던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 도시 조성, 국제·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와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상무대·관람석 개선과 연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고도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전환,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분야 간 연계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TF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력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K-관광을 선도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목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 신규 공중보건과의사 36명 포함 47명 배치

신안군은 최근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공중보건과의사 36명을 포함한 총 47명을 보건기관에 전원 배치했다. 이번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과의사는 의과 12명, 치과 14명, 한의과 10명 등 총 36명이다. 기존 복무 중인 11명 등 총 47명, 13개 읍·면 보건지소와 의료기관에 재배치했다.

특히 흑산도, 하의도, 신의도, 장산도, 가거도 등 5개 섬 지역에는 2명의 의사를 각각 배치해 야간·주말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적인 공중보건과의사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신안군도 지난해 대비 의과 6명, 한의과 1명 줄어든 인원이 배차됐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건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